

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스포츠의학과	이름	박*원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 컬리지	파견기간	18.08.26 ~ 18.12.22
귀국여부	예		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<i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i></p> <p>1. 위치 스카이트레인 langara 48th avenue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입니다.</p> <p>2. 규모 및 시설 5~6개 정도의 건물이 있고 순천향대 보다 작은 규모입니다. 우리학교 학생회관 같은 곳에 카페, 패스트푸드, 서브웨이, 스시집이 있습니다. 체육관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.</p> <p>3. 분위기 LEAP프로그램에서는 캐나다 현지인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고 교환학생, 혹은 대학교로 편입하려는 학생들이 주를 이룹니다.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, 대부분 동양권 학생들입니다.</p>
2018-2학기 수업	<p><i>본인이 수강한 과목,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.</i> <i>예) 수업내용, 수업방법, 과제, 수업준비 등</i></p> <p>1. 수업내용 첫 주에 읽기, 쓰기, 말하기 등의 간단한 레벨테스트를 본 후, 반 배정이 됩니다. LEAP 프로그램은 총 8단계로 이뤄져 있고, 레벨에 따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뉩니다. 오전반(LEAP4~8)은 8시반~12시반, 오후반(LEAP1~4)은 12시반~4시반입니다. 수업은 하루 4시간이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습니다.</p>

	<p>2. 수업방법 수업은 레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, 보통 말하기 보다는 듣기, 읽기, 쓰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한 학기는 총 15주로 이뤄져 있습니다. 각 세션은 7주간 진행되고, 첫번째 세션이 끝나고 일주일 방학이 있습니다.</p> <p>3. 성적 세션 당 2번의 그룹 발표가 있고, 매 주 말하기, 듣기, 쓰기 미니 시험이 있습니다. 매 주 주제가 있는 시험이지만, 우리나라 시험처럼 암기해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출석, 미니 시험,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세션 별 성적이 나옵니다. 평균 70점이상이면, 레벨 업이 됩니다.</p> <p>4. 과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본문을 읽고 문제풀이 2) 듣기 파일을 듣고 문제풀이 3) 그룹과제: 간단한 포스터 만들기, ppt 만들기 등 <p>5. 수업준비 바인더, 3색 형광펜, 공책 바인더와 공책의 경우, 오리엔테이션 때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,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<u>현지에서 사는 것</u>을 추천합니다.</p>
<p>프로그램 운영</p>	<p><i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</i> <i>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i></p> <p>1. 오리엔테이션 개강 전 일주일 간 진행됩니다. 학교 시설, LEAP프로그램, 캐나다 문화, 교통수단 이용방법 등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.</p> <p>2.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종종 있습니다. I-sports, i-cafe 등이 있는데, 이 프로그램들은 LEAP프로그램 학생 외에 현지 학생들도 참여하기 때문에,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<i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i></p> <p>9월 : 우리나라 9월 날씨와 비슷한 맑은 날씨입니다. 10월 : 중순부터 비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, 바람과 함께 조금씩 거의 매일 옵니다. 우산과 바람막이를 챙겨 갈 것을 추천합니다. 11월 : 비가 거의 매일 조금씩 오는 흐린 날이 지속되기 때문에, 기온은 영상이지만 체감온도가 낮습니다. 12월 : 밴쿠버의 겨울 날씨는 우리나라보다 덜 춥지만, 체감온도가 낮기 때문에 두꺼운 패딩을 챙겨갈 것을 추천합니다.</p> <p>** 밴쿠버 외 타 지역 여행을 계획한다면,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</p>
안전	<p><i>현지 안전 상황</i></p> <p>우리나라만큼 치안은 안전합니다. 단, 마리화나가 합법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겨울철에는 해가 빨리 지고, 길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놀랐습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(O) 외부 숙소() 기타()</p> <p><i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i></p> <p>홈스테이는 학교에서 랜덤으로 배정해줍니다. 저는 학교까지 걸어서 3분 거리인 집에 배정 받았지만, 경우에 따라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에 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.</p> <p>홈스테이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정 마다 귀가·식사·세탁·샤워시간 등의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.</p>
식사	<p><i>학교 Meal Plan () 학교식당 개별 이용 () 홈스테이 (O) 외부식당 (O) 직접 요리 () 기타 ()</i></p> <p><i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i></p> <p>홈스테이마다 식사방법, 시간은 다릅니다. 저의 경우, 아침 : 보통 시리얼, 토스트, 전날 먹고 남은 음식을 직접 데워 먹었습니다. 점심 : 토스트를 집에 와서 먹거나, 학교에 싸갔습니다. 저녁 :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준 음식을 가족들과 같이 먹었습니다.</p>

	<p>외식을 할 때에는 미리 연락하면 됩니다.</p> <p>저는 중국계 캐나다인 가정에 배정 받아서, 중국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. 조미료를 거의 쓰지 않고 건강식으로 제공해주셔서 좋았습니다. 대부분 괜찮았지만, 고수가 들어간 음식은 조금 힘들었습니다...</p>
교통	<p><i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i></p> <p>1. 통학방법 저는 홈스테이가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걸어 다녔습니다.</p> <p>2. 시내교통</p> <p>1) 지하철 : 무인 지하철이고 3분에 한 대씩 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. 주로 Canada line을 이용하게 되며, zone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.</p> <p>2) 버스 : 지하철 카드와 동일한 카드(compass card)를 씁니다. 탑승 시에만 카드를 찍고, 하차 시에는 창문에 붙어있는 노란 줄을 잡아당기거나, 기동의 stop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안 찍고 그냥 내리면 됩니다.</p> <p>**Compass card 구입 방법: 지하철역 내 무인 기계에서 보증금 6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. 귀국 전, 정해진 역(Waterfront station)에서 보증금 6달러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12만원	에어캐나다 왕복
Fees	<p><i>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,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.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.</i></p> <p>예) University Support Fee, \$3,000</p>	순천향대학교 등록금
보험료	<p><i>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,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.</i></p>	삼성화재 글로벌케어 56500원

숙소	가기 전 2달치+공항픽업 : 1700cad 공항픽업 및 수수료 : 120cad 8월(6일) : 168cad 10월: 850cad 12월(14일 반) : 406cad	1일 28cad (1cad = 약 860원) → 총 3644cad (약 313만원)
유심	스마텔 4GB 60cad	약 26만원
식비	8~12월 평균 320cad	약 110만원
교통비	8~12월 평균 45cad	약 17만원
책값	LEAP3 2권 25cad	약 2만원
기타1	기념품	약 7만원
기타2	한국으로 택배 297cad	CJ항공택배 [캐리어 2개] 약 25만원
기타3	여행 2020cad	약 174만원
합계		13581cad (약 1168만원)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*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(분량 자유)*

10월부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, 바람막이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.
가게, 상점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찍 문을 닫습니다.
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편의점에서 팔지 않고, liquor store에서만 팝니다.




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가기 전에는 조금 떨렸습니다. 또 내년에 4학년이라서 가는게 맞을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. 4개월동안 영어 실력 자체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,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소극적이었던 성격이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던 것 또한 좋은 경험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'처음'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, 여러가지 부딪히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배운 것 같고,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.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망설이는 분들께, 저는 갔다 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

한학기 동안 정말 후회없이 놀았기 때문에, 남은 1년 동안은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
<p>PNE 플레이랜드</p>	<p>빅토리아</p>
	
<p>록기산맥</p>	<p>휘슬러</p>
	
<p>카필라노 현수교</p>	<p>퀘벡</p>